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7. 28.(목) 11:00 < 7.29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7. 28.(목)
담당 부서 <총괄>	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호철 (044-203-4310)
		담당자	서기관 김도윤 (044-203-4313)

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

- 현장요원 동행 없이도 원격으로 로봇관제 허용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)는 **로봇업계**의 **애로사항**을 반영하여 산업융합 **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** 중인 **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**도 **원격관제**로 **실증**이 **가능하도록 국조실·경찰청**과 **협의**를 **마쳤다고** 밝혔다.

○ **부가조건 완화**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**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** 및 특히, **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** 시(6.8., 로보티즈) **총리**가 **약속**한 것으로 이번에 **결실**을 맺게 된 것이다.

□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**로봇 1대**당 **현장요원 1인**이 **동행**하도록 **요구**되어 다수**로봇 실증** 및 **데이터 확보**에 **어려움**이 있었으나,

○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**완전원격관제**가 가능한 **기업**은 현장요원 대신 **원격관리자**를 **책임관리자**로 **지정**하여 다수의 **로봇**을 **총괄관리**하는 것이 가능해졌다.

□ 산업부는 산업융합 **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**에 따라 **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**를 거쳐 조속히 **기업**의 **현장실증을 지원**할 것이며,

○ **배달·순찰** 등의 실외 자율주행 **로봇서비스**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**제공**되도록 **지능형로봇법**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호철 (044-203-4310)
		담당자	서기관 김도윤 (044-203-4313)
	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	책임자	팀 장 우성훈 (044-203-4520)
		담당자	사무관 위성원 (044-203-45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현장요원 부가조건 완화 내용**

기 존	변 경
○ **현장요원 운전자 지정** -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배송 로봇은 운전자가 없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	○ **책임관리자 지정 등** -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-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 중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, 원격관제 당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하도록 하고, 횡단보도, 이면도로, 차량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- 단, 완전원격관제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현장요원을 배치하되,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책임관리자로 지정. 현장요원은 로봇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가능